

다섯 태양의 전설 – 아스테카의 태양신화(2)

〈다섯 태양의 전설 해제〉

1. 『치말포포카 고문서』

아스테카의 태양 신화는 여러 판본이 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판본은 다음 세 가지다. 하나는 베르나르디노 데 사아군이 채록한 『피렌체 고문서』(Códice Florentino)이고, 둘은 『그림으로 본 멕시코인의 역사』(Historia de los mexicanos por sus pinturas)이며, 셋은 여기에 소개하는 『치말포포카 고문서』(Códice Chimalpopoca), 일명 『다섯 태양의 전설』(Leyenda de los soles)이다.

『치말포포카 고문서』는 아스테카인이 사용하던 나우아어를 로마자로 음차하여 작성했으며, 작성자는 미상이다. 제작 연대는, 작성자가 본문에서 1558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전하던 책은(1949년 이후 실전되었다) 1570년대에 필사하고 재판 집한 판본이다.

아스테카의 고문서가 다들 그렇듯이, 원래는 책명이 없는 수고(manuscrito)였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 브라쉴르 드 부르부르(Brasseur de Bourbourg)가 치말포포카 고문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처음으로 이 책 번역을 시도한 멕시코 역사가 파우스티노 갈리시아 치말포포카를 기리는 뜻이었다.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1570년대 작성된 쿠아우티틀란 연대기(Anales de Cuauhtitlan), 둘째 부분은 베네딕도회 수사 페드로 폰세 데 레온(Pedro Ponce de León, 1520-1584)이 스페인어로 작성한 『이교도의 의례와 신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Breve relación de los dioses y ritos de la gentilidad), 셋

째 부분은 『다섯 태양 신화』인데, 이 가운데 스페인어로 쓴 둘째 부분을 제외하고 나우아어로 된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만을 가리켜 흔히 『치말포포카 고문서』라고 부른다.

여기에 소개하는 번역은 『다섯 태양의 전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첫 부분을 옮긴 것으로, 프리모 펠리시아노 벨라스케스(Primo Feliciano Velázquez)가 1945년에 출판한 스페인어본 『치말포포카 고문서: 쿠아우티틀란 연보와 다섯 태양의 전설』을 대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16세기 나우아어는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역자에 따라서 해석과 번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벨라스케스의 스페인어본에서 모호한 부분은 미겔 레온 포르티야(Miguel León-Portilla)의 번역과 존 비어호스트(John Bierhorst)의 영역본을 참고하였다.

2. 아스테카 일(日)의 명칭

이 기회에 『다섯 태양의 전설』에 등장하는 아스테카 일의 명칭이 생소하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아스테카의 달력 표기법은 우리의 간지법(干支法)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간지법은 10간과 12지로 연, 월, 일을 표기하는데, 첫 조합인 ‘갑자’ 일(월, 년)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일(월, 년)이 걸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스테카에서도 13간과 20지로(‘13간, 20지’는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일 뿐, 아스테카에서는 ‘간’이나 ‘지’에 해당하는 그 어떤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날에 이름을 붙였으며, 최소공배수인 260일을 의례력 1년으로 삼았다(태양력 1년은 365일이었다).

아스테카 달력에서 13간은 1~13까지의 숫자로 표기한다. 원래는 ‘일, 이, 삼...’으로 표기했으나 현재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20지는 우리와 유사하게 동식물 이름이 많다.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약어, 바람, 집, 도마뱀, 뱀, 죽음, 사슴, 토끼, 물, 개, 원숭이, 약초, 식물의 줄기, 재규어(또는 호랑이), 독수리(또는 아길라), 수리(또는 검은대머리수리), 움직임(또는 활동), 부싯돌, 비, 꽃.

1	2	3	4	5	6	7	8	9	10	11
약어	바람	집	도마뱀	뱀	죽음	사슴	토끼	물	개	원숭이
12	13	1	2	3	4	5	6	7	8	...
약초	줄기	재규어	독수리	수리	움직임	부싯돌	비	꽃	약어	...

위 표처럼, 양자를 조합하여 각각의 날에 이름을 붙이는데, 첫 날의 명칭은 ‘1

악어', 둘째 날의 명칭은 '2바람', 셋째 날의 명칭은 '3집' ... 이렇게 진행된다. 260일이 지나면 한 바퀴 순환하므로 261일은 다시 '1악어'가 된다.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60갑자가 아니라 260갑자인 셈이다.

1개월은 20일이었으며, 1년은 18개월이었다(여기에 소개하지는 않지만 각 달마다 고유의 명칭을 사용했다). $20 \times 18 = 360$ 이므로 1년에서 5일이 남는다. 이 기간은 텅으로 여겼으며, 길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을 행하는 등 매사에 조심했다.

또, 엇갈려 진행되던 의례력 1년(260일)과 태양력 1년(365일)이 다시 같아지는 때, 즉 최소공배수는 18,980일인데, 이를 365일로 나누면 52년이 된다. 이 52년을 아스테카인은 한 주기(우리 전통에서는 60년, 현대의 의미로는 1세기)로 보았다.

참고문헌

- Bierhorst, John. 1985. *A Nahuatl-English Dictionary and Concordance to the 'Cantares Mexicanos': With an Analytic Transcription and Grammatical No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story and mythology of the Aztecs: the Codex Chimalpopoca*, translated by John Bierhorst.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Kockelman, Paul. 1998. "Legend of the Suns: Reproducing the production of a Nahuatl text", *Estudios de Cultura Náhuatl*, 28, pp. 219-239.
- León-Portilla, Miguel. 1963. *Aztec thought and culture: a study of the ancient Nahuatl mind*, translated from the Spanish by Jack Emory Davi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León-Portilla, Miguel. 1993. *La filosofía náhuatl*.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Velázquez, Primo Feliciano. 1945. *Códice Chimalpopoca: Anales de Cuauhtitlan y Leyenda de los soles*. México: Imprenta Universitaria.

다섯 태양의 전설

여기 지혜를 담은 옛날이야기가 있다. 아주 오래 전에 땅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세상이 하나씩 어떻게 생겨났으며, 각각의 태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기원했는지를 이야기한다.¹⁾ 1558년 5월 22일 현재로부터 2513년 전의 일이다.

[첫 번째 태양]²⁾

이 태양 4재규어는 676년 동안 지속했다. 이 첫 번째 태양에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재규어에게 잡혀먹었다. 4재규어 태양 때의 일이다. 그 때는 7약초를³⁾ 먹었다. 그것이 식량이었다. 676년 동안 살다가 13년간 한 마리 맹수에게 잡아먹혀 멸망하고 종말을 맞았다. 그 때 태양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잡혀먹기 시작한 때는 1갈대 해이고, 4재규어 일(日)이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끝나고, 멸망했다.

[두 번째 태양]

이 태양의 이름은 4바람이다. 이 두 번째 태양 아래서 살던 이 사람들은 바람에 쓸려갔다. 4바람 태양 때였다. 바람에 쓸려간 사람들은, 사라진 사람들은 원숭이로 변했다. 그들이 살던 집과 나무도 모두 바람에

1) 이 구절은 미겔 레온 포르티야의 번역이다(León-Portilla 1993, 102).

2) 이하 대괄호 안의 문구는 역자가 첨가한 것이다.

3) 아스테카인은 달력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식량을 지칭했는데,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7약초'가 '소나무 씨앗'이라고 추정한다.

쏟아졌다. 이 태양조차 바람에 쓸려갔다. 그때 사람들은 12뱀을 먹었다.⁴⁾ 그것이 식량이었다.

364년 동안 살다가 하루아침에 바람에 쓸려 사라졌다. 4바람 일(日)에 멸망한 것이다. 그 해(年)는 1부싯돌이었다.

[세 번째 태양]

이 태양은 4비이다. 세 번째 태양, 4비 태양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멸망했다.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칠면조로 변했다. 태양 역시 불에 탔다. 집도 모두 불에 탔다. 그러니까 312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불 비를 맞고 멸망했다. 식량으로는 7부싯돌을 먹었다.⁵⁾ 그것이 식량이었다.

그 해는 1부싯돌이었으며, 4비 일(日) 하루 만에 멸망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였으므로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피필 피필’이라고 부른다.⁶⁾

[네 번째 태양]

이 태양의 이름은 4물이다. 52년간 물이 차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네 번째 태양에서 살았는데, 그 태양이 4물 태양이었다. 676년 동안 살았다.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물고기가 되었다. 저기 하늘까지 물에 잠겼다. 하루 만에 모두 죽었다. 그때 사람들은 4꽃을 먹었다. 그것이 식량이었다.

4) 12뱀은 콩과 식물인 메스키투 열매라고 추정한다.

5) 7부싯돌은 물에서 자라는 곡물이라고 추정한다.

6) 벨라스케스와 비어호프 모두 어린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반해, 레온 포르티야는 칠면조로 번역한다. “그때 멸망한 사람들이 칠면조(pipiltin)가 되었으므로, 지금도 칠면조 새끼를 피필피필(pipilpipil)이라고 부른다.” (León-Portilla 1993, 102-103).

그 해(年)는 1집이었다. 4물 일(日)에 모든 것이 멸망했다. 산이라는 산은 모두 사라졌다. 52년간 물에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태양의 시기가 끝날 무렵, 티틀라카우안은⁷⁾ 타타라는 이름의 남편과 네네라는 이름의 부인을 불러 이렇게 명했다. “다른 일은 그만하고, 거대한 사이프러스 통나무를 파거라. 잘 살펴보고 있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이리하여 부부가 통나무 안으로 들어가자 티틀라카우안은 뚜껑을 덮고 일러주었다. “너는 옥수수 한 자루만 먹어야 한다. 네 아내도 마찬가지다.” 옥수수를 다 먹은 부부는 물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나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뚜껑이 열리자 물고기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부부는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먹었다. 이 광경을 본 시틀랄리니쿠에와⁸⁾ 시틀랄라토낙이 말했다. “신들이시여! 지금 불을 피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⁹⁾

곧이어 티틀라카우안, 즉 테스카틀리포카가 내려와서 부부를 꾸짖었다. “타타, 네 지금 뭐하는 짓이냐? 부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리고 부부의 목을 잘라서 머리로 엉덩이를 때리자, 개로 변했다.

[새로운 불 의식의 기원]

2갈대 해(年), 연기가 다시 하늘로 피어올랐다. 그것은 우리들 때문이

7) 티틀라카우안(Titlacahuan)은 “우리는 그 분의 종이다”라는 뜻으로, 조물주에 해당한다. 별칭은 테스카틀리포카(Tezcatlipoca)이다.

8) 시틀랄리니쿠에(Citlalinicue 또는 Citlallinicue)는 ‘빛나는 속치마’라는 뜻의 여신이며, 시틀랄라토낙(Citlalatónac 또는 Citlallatónac)은 ‘만물을 빛나게 만드는 분’이라는 뜻의 남신이다. 그러나 두 신이 아니라 자웅동체처럼 한 신의 양면이다.

9) 신들이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허락하지도 안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피웠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 금지된 육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으며, 홍수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던 땅에 생존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었다. 우리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1토끼 해에 하늘이 자리 잡고,¹⁰⁾ 잉겔이 떨어져서 불이 나타났다.¹¹⁾ 그 전 25년은 밤이었다.

아무튼 1토끼 해에 하늘이 자리 잡았다. 하늘이 자리 잡은 후, 이미 얘기했듯이, 개들이 연기를 피웠다. 나중에 잉겔이 떨어져서 테스카틀리포카가 불을 피웠다. 그래서 2갈대 해에 연기가 다시 하늘로 피어올랐다.

[새 인간의 탄생]

신들은 의논하였다. “어떤 신께서 저기에 거주하겠습니까? 하늘이 자리 잡고 있고, 틀라테쿠틀리도¹²⁾ 멈춰 서 있는데, 어떤 신께서 거주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신은 시틀랄리이쿠에(Citlaliicue), 시틀랄라토낙, 아판테욱틀리(Apanteuctli), 테판키스키(Tepanquizqui), 틀라야만키(Tlallamanqui), 우익틀로인키(Huictlollinqui), 케찰코아틀,¹³⁾ 티틀라카우안이었다. 그때 케찰코아틀이 므틀란으로¹⁴⁾ 갔다.

므틀란테욱틀리와¹⁵⁾ 므틀란시우아틀이 다가오자 케찰코아틀이 말했다. “당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귀중한 유골을 가지러 왔습니다.”

므틀란테욱틀리가 말했다. “그것으로 무얼 하시려고요?”

케찰코아틀이 다시 말했다. “신들이 그 유골로 땅 위에 살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10) 다른 문헌에 의하면, 케찰코아틀과 테스카틀리포카가 커다란 나무로 변하여 무너진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때가 토끼 해였다고 한다.

11) 비어호스트는 잉겔을 보우드릴(fire drill)로 옮기고 있다.

12) 틀라테쿠틀리(Tlaltecuhli)는 땅의 신.

13) 원문은 케찰코우아틀(Quetzalcóhuatl)로 표기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케찰코아틀(Quetzalcóatl)로 옮긴다.

14) 아스테카의 세계관에서 저승은 모든 9층이다. 망자는 제1층에서 시작하여 제일 깊은 곳에 위치한 제9저승 므틀란(Mictlan)으로 내려가며, 이곳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15) 므틀란테욱틀리(Mictlanteuctli)는 제9저승의 왕이며, 므틀란시우아틀(Mictlancíhuatl)는 제9저승의 여왕이다.

믹틀란테옥틀리가 대답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이 소라나팔을 불고, 왕국을 네 번 도십시오.”¹⁶⁾

그러나 나팔에 구멍이 없었다. 케찰코아틀은 벌레를 불러 구멍을 뚫게 했다. 꿀벌과 호박벌이 즉시 나팔로 들어갔다. 케찰코아틀이 나팔을 불었다.

나팔 소리를 들은 므틀란테옥틀리가 다시 말했다. “좋습니다. 유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사자(micteca)들에게는 이렇게 일렀다. “케찰코아틀에게 가서 유골은 여기 두고 가야한다고 일러라.”

케찰코아틀은 말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영원히 내 것입니다.”

그때 케찰코아틀의 나구알이¹⁷⁾ 케찰코아틀에게 말했다. “유골을 두고 가겠다고 어서 말하십시오.”

케찰코아틀은 큰소리로 말했다. “여기 두고 가겠소.” 그리고 재빨리 지상으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케찰코아틀은 귀중한 유골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 뭉치는 남자 유골이고, 또 한 뭉치는 여자 유골이었다. 이렇게 케찰코아틀은 유골을 꾸러미로 만들어 가져왔다.

믹틀란테옥틀리는 다시 사자들에게 말했다. “정녕 케찰코아틀이 귀중한 유골을 가져갔단 말이냐! 어서 가서 허방에 빠지게 구덩이를 파거라.”

사자들은 구덩이를 팠다. 케찰코아틀은 구덩이에 떨어졌다. 메추리 떼에게 놀라서 케찰코아틀은 기절했고, 귀중한 유골은 바닥에 흩어졌다. 메추리가 유골을 물어뜯고 부리로 쪼았다.

조금 후, 정신을 차린 케찰코아틀은 울면서 나구알에게 말했다. “나

16) 벨라스케스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내 소라나팔을 불고, 옥돌로 만든 내 의자 주위를 네 번 도십시오.”

17) 아스테카와 마야의 신앙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수호해주는 마술적 힘을 지닌 동물(원숭이, 칠면조, 개, 재규어 등)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가리켜 나구알(nagual)이라고 한다. 나우알(nahual)로 표기하기도 한다.

구알, 이 일을 어찌하면 중단 말이나?”

나구알이 말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유골이 부서졌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¹⁸⁾

케찰코아틀은 유골을 모아 다시 꾸러미로 만들고, 그 즉시 타모안찬으로¹⁹⁾ 가져갔다.

케찰코아틀이 유골을 갖고 오자 킬라츠틀리(Quilachtli)라는 이름의 여신, 즉 시우아코우아틀(Cihuacóhuatl)이 유골을 분쇄해서 옥 사발에 담았다. 케찰코아틀은 성기를 사발에 대고 피를 냈다. 그 즉시 앞서 언급한 신들은, 다시 말해서 아판테유크틀리, 우익틀로인키(Huictlollinqui), 테판키스키(Tepanquizqui), 틀라야만키(Tlallamanqui), 촌테목(Tzonté moc), 여섯 번째로 케찰코아틀은 고행에 들어갔다.

신들이 말했다. “신성한 무엇, 인간들이 탄생했다.”²⁰⁾ 그것은 신들이 우리를 위해 고행했기 때문이다.

[옥수수 발견]

다시 신들이 말했다. “저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오. 벌써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그때 개미가 토나카테페틀에서²¹⁾ 옥수수 알갱이를 가져오고 있었다.

케찰코아틀은 그 개미를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말해라.”

여러 차례 물었는데도 개미는 대답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윽고 “저

18) 원래 지상에는 거인들이 살았으나 이렇게 유골이 부서지는 바람에 지금은 키가 작아지고, 사람마다 키 차이가 생겼다고 한다.

19) 타모안찬(Tamoanchan)은 낙원을 뜻한다.

20) 이 구절은 역자마다 다르게 번역한다. “신들을 섬기는 신하들이 탄생했다”(Velázquez), “신들과 인간들이 탄생했다”(Lehmann), “신들의 유골에서 인간들이 탄생했다”(Garibay). 여기에서는 비어호스트의 번역에 따랐다.

21) 토나카테페틀(Tonacatépetl)은 ‘곡식 산’이라는 뜻이다.

기”라면서 길을 가리켰다.

케찰코아틀은 검은 개미로 변신해서 개미를 따라갔다. 케찰코아틀과 개미는 안으로 들어가서 옥수수 알갱이를 끌고왔다. 다시 말해서, 케찰코아틀은 붉은 개미를 따라서 토나카테페틀까지 갔고, 옥수수를 꺼낸 즉시 타모안찬으로 가져왔다. 신들은 옥수수를 씹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었고, 우리는 강건해졌다.

그 후에 신들이 말했다. “토나카테페틀을 어찌할까요?”

케찰코아틀은 혼자 토나카테페틀로 갔다. 산을 끈으로 묶어 등에 지고 오려고 했는데, 들 수가 없었다.

그때 오소모코가²²⁾ 옥수수로 점을 쳤다. 시팍토날²³⁾ 역시 점을 쳤다. 시팍토날은 여사이므로 오소모코의 아내이다.²⁴⁾ 오소모코와 시팍토날은, 나나우아틀만이²⁵⁾ 막대기로 토나카테페틀을 털 수 있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말했다.

틀랄로케를²⁶⁾ 모두 소집했다. 파란 틀랄로케, 하얀 틀랄로케, 노란 틀랄로케, 빨간 틀랄로케가 나타났다. 나나우아틀은 막대기로 토나카테페틀을 털고, 틀랄로케들은 곡식을 흠쳤다. 하얀 옥수수, 검은 옥수수, 노란 옥수수, 빨간 옥수수, 강낭콩, 아마란스, 치아, 미치우아우틀리²⁷⁾ 등 모든 곡식을 흠쳤다.

[다섯 번째 태양]

22) 오소모코(Oxomoco)는 점성술의 여신.

23) 시팍토날(Cipactónal)은 점성술의 남신.

24) 『다섯 태양의 전설』을 쓴 저자는, 오소모코가 여적이고, 시팍토날은 남자라는 견해가 잘못이고 강조한 구절이다.

25) 나나우아틀(Nanāhuatl)은 나나우아친(Nanahuatzi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온몸에 부스럼이 돌아있으며, 신 중에서 가장 미친한 신이다.

26) 틀랄로케(tlaloque)는 비구름 신.

27) 미치우아우틀리(michihuauhtli)는 아마란스의 일종.

이 태양의 이름은 4움직임이다. 이 태양은 우리들의 태양이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태양이다. 이 태양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있다. 태양이 불속으로,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의 신성한 모닥불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토얀의²⁸⁾ 토필친,²⁹⁾ 즉 케찰코아틀의 태양과 동일한 태양이다. 이 태양이 되기 전의 이름은 나나우아틀로, 타모안찬에 살던 신이다. 독수리, 재규어, 매, 늑대.³⁰⁾ 6바람과 6꽃, 둘 모두 태양의 이름이다.

여기에 이름하여 신성한 모닥불이 있다. 4년 동안 불타올랐다. 토나카테욱틀리와³¹⁾ 시우테욱틀리가³²⁾ 나나우아틀을 불러서 말했다. “이제부터 네가 하늘과 땅을 유지할 것이다.”

심란해진 나나우아틀이 말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요? 저는 불쌍한 환자입니다.” 두 신은 4부싯돌을 불렀다. 4부싯돌은 달(月)이다. 틀랄로칸테욱틀리도³³⁾ 불려왔고, 나파테욱틀리도³⁴⁾ 불려왔다.

이윽고 나나우아틀은 금식을 하고, 바늘을 찡기고 가시가 달린 나뭇가지로 만든 관을 찡겼다. 그리고 달에게도 가시를 주었다. 먼저 나나우아틀이 가시로 피를 냈고, 다음에는 달이 피를 냈다. 달의 관은 부드러운 깃털이었으며, 달의 가시는 옥이었고, 옥으로 향을 피웠다.³⁵⁾

28) 토얀(Tollan)은 한때 톨테카(Tolteca) 문화의 중심지 톨라(Tula)를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은 테오티우아칸, 톨라, 테노치티틀란과 같은 고대 원주민 문화의 ‘중심지’ 또는 ‘수도’라고 해석한다. 이 문맥에서는 톨라로 해석할 수 있다.

29) 토필친(Topiltzin)은 ‘우리의 주군’, ‘신성한 왕’이라는 뜻이다. ‘토필친 케찰코아틀’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30) 이 네 동물은 다섯 번째 태양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아래 참고.

31) 토나카테욱틀리(Tonacateuctli)는 인간의 육신을 관장하는 신이다. 아내는 토나카시우아틀(Tonacacihuatl)이다.

32) 시우테욱틀리(Xiuhteuctli)는 해(年)를 관장하는 신이다.

33) 틀랄로칸테욱틀리(Tlalocanteuctli)는 낙원을 관장하는 신이다.

34) 나파테욱틀리(Napateuctli 또는 Nappateuctli)는 ‘4배의 주군’이라는 뜻으로 직조(베짜기)의 신이다.

35) 이 단락에서도 벨라스케스와 비어호스트의 해석이 같린다. 비어호스트는 이렇게 옮긴다. “이윽고 나나우아틀은 금식을 하고, 바늘과 가시를 찡겼으며, 달에게도 가시를 주었다. 둘은 고행을 했다[가시로 자기 몸을 찢러 피를 냈다는 뜻]. 먼저 나나우아틀이 목욕했고, 다음에 달이 목욕했다. 달의 가시는 부드러운 깃털이었으며, 바늘은

4일이 흘렀다. 나나우아틀에게 백토(白土)를 칠하고 깃털을 달아주었다. 나나우아틀은 불로 들어갔다. 그동안 4부식들은 여자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나나우아틀은 불 속에 떨어졌다. 달은 재에 떨어졌다.

나나우아틀은 떠날 때 독수리를 붙잡아 데려갈 수 있었다.³⁶⁾ 재규어는 데려갈 수가 없었다. 불 옆에 서 있다가 훌쩍 뛰어넘었다. 그래서 반점이 있다. 거기서 매는 까맣게 그을렸고, 늑대는 살짝 그을렸다. 이 세 동물은 데려가지 못했다.

나나우아틀이 하늘에 도착하자 토나카테윅틀리와 토나카시우아틀가 환대했다. 나나우아틀을 홍학 깃털로 만든 왕좌에 앉히고, 빨간 띠로 머리를 동여매주었다.

나나우아틀은 나흘간 하늘에 머물렀다. 4움직임 일에서 멈춘 것이다.³⁷⁾ 4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때 신들이 말했다. “왜 안 움직이지?” 그리고 새까만 매를 보내 물었다. “신들이 안 움직이는 연유를 물어보십시오.”

태양이 대답했다. “왜 안 움직이느냐고? 신들의 피와 신들의 왕국을 나에게 달라.”³⁸⁾

신들은 상의했다. 틀라우이스칼판테윅틀리는³⁹⁾ 화를 내고, 말했다. “내가 화살을 쏘면 아마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화살을 날렸으나 맞이지 못했다. “이런!”

태양이 틀라우이스칼판테윅틀리에게 화살을 쏘았다. 붉은 깃털이 달린 화살대였다. 그때 아홉 층의 하늘이⁴⁰⁾ 틀라우이스칼판테윅틀리 얼굴을

옥이었고, 옥으로 향을 피웠다” .

36) 그래서 불에 탄 독수리 깃털은 까맣다.

37) 비어호스트는 “4움직임 일에 나타났다”고 옮기고 있다.

38) 비어호스트는 “신들의 피, 신들의 색깔, 신들의 귀중한 본질을 달라는 것이다”라고 옮긴다. 여기서 피, 색깔, 귀중한 본질은 모두 피를 가리킨다.

39) 틀라우이스칼판테윅틀리(Tlahuizcalpanteuctli 또는 Tlahuizcalpantecuhtli)는 셋 별의 신 또는 새벽의 신이다.

40) 일반적으로 아스테카에서 하늘은 12층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다섯 태양의 전설』 저자는 앞서 하늘이 9층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9층은 저승을 의미할 수도 있다.

덮었다. 틀라우이스칼판테옥틀리는 얼음이기 때문이다.⁴¹⁾

신들이 회합했다. 남신은 티틀라우아칸(Titlahuacan)과 우이칠로포츠틀리(Huizilopochtli)이고, 여신은 소치케찰(Xochiquetzal), 야팔리이쿠에(Yapaliicue), 녹팔리이쿠에(Nochpaliicue)였다. 이 신들은 저기 테오티우아칸에서 자진(自盡)했다.

태양이 하늘로 떠난 후, 재에 떨어진 달도 움직였다. 달이 하늘 가장 자리에 도착했을 때, 파파스탁이⁴²⁾ 다가와서 토끼 모양의 주전자로 얼굴을 가격했다. 교차로에서 만난 치치미메,⁴³⁾ 즉 콜렐레틴이 달에게 말했다. “어서 오시오.” 오랫동안 달을 붙잡고 누더기 옷을 입혔다. 그때 4움직임 태양이 정지했고, 밤이 되었다.

[박병규 해제 및 옮김]

박병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41) 이 구절에서 ‘얼음’은 차가운 아침의 ‘서리’를 의미한다.

42) 파파스탁(Papaztac)은 주신(酒神)이다.

43) 치치미메(Tzitzimime)는 태양이나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방해하는 신이다.